

주유소 95% 주유량 속여...

243곳 중 95%가 정량 미달 ... 법적 허용치는 충족

전국 대부분의 주유소가 정량에 미달하는 양의 기름을 넣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석유관리원은 10월 12-30일 전국 주유소의 2%인 243곳을 골라 정량판매 실태를 특별 점검한 결과, 95%가 정량보다 모자라게 석유제품을 주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석유관리원은 주유량의 오차 평균이 20ℓ 기준으로 -56.2ml에 그쳐 대부분은 법률에서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지만, 2개 주유소는 법적 허용치에 크게 모자라는 양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석유관리원은 적발된 주유소 2곳에 사업정지,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하도록 해당 자치단체에 통보했다.

법정계량기를 사용할 때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 오차(사용공차) 범위는 주유량의 $\pm 0.75\%$ 이기 때문에 20ℓ를 주유하면 최대 $\pm 150\text{ml}$ 의 오차가 허용된다.

이천호 석유관리원 이사장은 “앞으로 더욱 철저한 관리를 통해 건전한 석유유통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9/11/17>